

한 작가의 현장부재증명, 10년의 침묵을 깨는 첫 창작집



《우체부가 없는 사진》 남상순 지음 | 문이당 | 292쪽 | 값 8,500원

‘소설의 시대’로 불린 1990년대 소설을 눈여겨본 독자라면 《흰 뱀을 찾아서》라는 매우 독특한 감응력을 가진 장편소설을 기억할 것이다. 작가에게 〈오늘의 작가상〉을 안긴 그 작품은 아무렇지 않게 가족(언니)에 얽힌 비화를 들추어내면서 전례가 없는 묘사의 전율성으로 많은 독자를 사로잡았다. 이후 작가 남상순에게는 1990년대 우리 소설의 새로운 방향과 단계를 모색해야 하는 과업이 주어졌다. 하지만 남상순은 《흰 뱀을 찾아서》의 과급력만큼이나 빠르게 독자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다. 그런 그녀가 10년 만에 첫 창작집을 펴냈다. 제목은 《우체부가 없는 사진》. 작가는 다음과 같이 10년 만의 창작집 출간의 소회를 밝힌다.

“어쨌든 후련해요. 그 동안 묵혀 놓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째뼉하고 답답했는데 책으로 출간되고 나니 오래된 체기가 순식간에 가신 듯합니다. 언젠가는 건너야 할 다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이후 10년 동안의 돌연한 침묵을 궁금해하는 건 속인의 생리일까.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녀 자신뿐 아니라 그녀에게 기대를 걸었던 한국소설계로서도 꺾이나 아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현장부재증명을 해명할 것을 요구받는다.

“여기저기, 평소에 내가 눈길조차 두지 않던 곳을 기웃거렸어요. 싫어하던 사람들과 관계 맺고 어울려 지내는 것, 그들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 보는 것,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해보는 것, 통속적인 삶을 살아보는 것 등을 실천해 봤어요.



삶도 마음도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우체부가 없는 사진》에 수록된 작품들은 거칠게 보면 성장소설과 후일담소설로 나뉠 수 있다. 여러 해에 걸쳐 발표됐던 작품들이지만 씌어진 시간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한결같이 정갈하고 단단한 서사력과 응집된 주제를 보여준다. 특히 가족과 기억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가족의 고통, 개인의 고통을 사회의 보편적인 고통으로 전이하고 확장시키는 듯하다. 물론 이같은 구도는 1990년대 소설일반에서 매우 낮은 모습이다.

“가족간 갈등의 폭과 깊이가 작가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인물의 내면보다는 관계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관계를 풀어나가는 인물의 의식에는 이 사회의 욕망이나 제도, 관습, 통념 같은 것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 가운데에서 나는 우

리 삶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있어 소설은 일종의 구원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해 보일 방법이 소설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글을 열심히 써야겠다고 생각해요. 내게 무한정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우선은 내년 초까지 장편 하나를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여자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문제의식을 다루고 싶은데 그동안 다른 작가들이 해온 작업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소설을 탐독했다는 그녀는 대학에서 자신이 발 딛고 선 사회현실을 체감했다. 수많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학습을 받으면서 치열하게 자신을 담금질했던 것. 그렇게 만들어진 강단과 열정이 10년의 침묵을 요란하지 않게 깨뜨리면서 시간의 늪을 건너는 힘이 됐을 것이다. ■■

취재 김도연 기자

